

교육 동향

이준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jyum94@krivet.re.kr)

▣ 정책 동향

| 정부, 2005년 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 개최 |

2005년 제3차 인적자원개발 회의에서는 '군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도' 등의 안건을 심의

정부는 7월 18일 2005년 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고,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확대 실시'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11개 부처 공동으로 군 복무중인 장병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군 e-러닝 학습컨텐츠, 군 자격제도 개선, 군 교육훈련 평가' 등 핵심과제 개발과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서울과 5개 광역시의 15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총 150억원을 지원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도

올 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실시,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하고, 내년부터는 공공부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신청 결과 발표 |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5일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마감

한 결과, 국립대학 10개교가 통폐합에 합의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제출하였고, 구조개혁 선도대학 분야에서 38개 대학이 특성화 계획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에는 국립대학 17개(수도권 3개교, 지방 14개교), 사립대학 13개, 8개 전문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가운데 10개 국립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캠퍼스별 특성화를 위해 구조개혁 차원에서 5개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도 경희대 620명, 한양대 564명, 성균관대 400명, 인하대 399명, 고려대 398명, 연세대 398명, 이화여대 396명 등을 감축키로 하였고, 이 가운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은 대학원 정원도 줄이기로 했다.

이번 국립대학 통폐합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보다도 지역산업과 연계된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으며, 통폐합 계획대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입학정원, 학사조직, 행정조직이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번의 대학 통폐합을 계기로 현재 통폐합을 논의 중인 대학간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소극적인 다른 여타 국립대학의 통폐합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학회계를 도입하고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유도하여 대학 스스로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국립대 통·폐합은 대학구성원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고 사립대 정원 줄이기도 전체 구도만 제출됐을 뿐 학부나 전공별 감축 계획이 없어 학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일부 대학간 구조조정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재자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과목선 이수제(AP)' 시범운영 실시 |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25일부터 서울, 부산 등 8개 지역에서 '대학과목선 이수제(AP)'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의 교과목을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이수하면 이를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등에서는 널리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고, 특히 과학고 등에서는 대학 수준의 전문 교과목을 이수하고도 대학에 진학 후 동일한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았으며, 특수목적고의 정상 운영과 평준화제도 보완을 위한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육부는 '2008 대입제도 개선계획'과 '수월성교육 종합대책' 등을 통하여 AP제도 도입을 발표한바 있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이번 국립대학 통폐합은 지역 산업과 연계된 대학별 특성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그 목적

대학과목선 이수제(AP)
고등학생이 대학교과목을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하면 이를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결정하였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8개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제주로 확정되었으며,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 해당 지역 소재 대학과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대학교 1~2학년의 전공기초과목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영어, 제2외국어 등 10개 과목이 운영되고, 강사는 주로 대학 교수가 맡으나, 일부 과목의 경우 고교 교사가 협력하여 지도하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여름방학 중(7.25~8.20)에 과목별로 45시간을 이수하게 되며, 이수결과는 평가를 거쳐 A, B, C...F 등의 점수가 부여되고, 공동이수증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특기사항에 이수 결과를 기록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시범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고교생의 대학 입학전 과목이수의 학점화를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등 AP제도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AP과정 이수결과를 대학입시에 직접 반영할 경우 사교육 확대 및 과열현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AP제도를 대학입시와 연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인적자원부 등 3개 부처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 최종 지원대상 기관 확정 |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는 8월 2일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에 신규 추진한 5개 사업별로 최종 지원대상 기관을 확정·발표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는 8월 2일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실험실,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등 금년에 신규 추진한 5개 사업별로 최종 지원대상 기관을 확정·발표하였다.

산학협력확산사업은 작년에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최초의 부처공동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제1기 산학협력확산사업)에 이어, 노동부가 신규로 참여하고 지원대상도 4년제 대학에서 대학원, 2년제 대학, 실업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지난 5월 부처 공동 사업공고 이후 6~7월까지 2개월 동안의 평가과정을 거쳤으며, 동 사업 전체의 평균 경쟁률은 3:1을 상회하였다.

먼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분야별로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실적과 산학협력 활동을 보여주는 대학원 교수와 실험실을 지원하는 '최우수 실험실(Lab of Excellency)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총 151개 실험실이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52개 실험실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결과 여성이 총괄책임자이거나 소속 석·박사중 2인 이상이 여성인 실험실이 전체의 52%를 차지하였다.

지역전략산업 및 성장동력분야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와 기능대를 대상으로 3~4년, 연간 8~10억원 내외를 지원하는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지원사업'은 각각 29개 중 10개, 64개 중 20개 대학이 선정

되었다. 동 사업은 기존에 교육부는 전문대, 노동부는 기능대 지원의 틀을 벗어나, 전문대와 기능대가 동시에 경쟁한 최초의 사업으로서, 최종적으로 전문대는 22개, 기능대는 8개가 포함되었다.

실업고를 기존에 직업교육기관에서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한 조기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범사업인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 사업'은 16개 시도별 1차 예비경선을 거쳐 추천된 43개 실업고 중에서 최종 20개 실업고가 선정되었다. 동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에 산업자원부와 노동부 등 타 부처가 지원한 유일한 사업으로서, 20개 학교 선발에 70개교가 참여하는 등 일선 학교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고자 업종에 특수한 인력수급현황 분석 및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혁신센터사업'의 경우, 신청한 10개 기관 중 지원 자격 논란이 있었던 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가 금년 3월에 출범되어 운영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협의체간 균형발전 필요성이 고려되었다.

금년 3개 부처 공동의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은 인력수요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인력공급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가 공동 참여함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간 2만5천여 명의 이공계 핵심인력이 동 사업에 참여하고, '05~'08까지 4년간 3만여 명의 산업현장 밀착형 인력이 산업계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관간 연계를 통해 산학협력형 인력양성 기반이 구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특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인적자원부, 약학대학 수업연한 6년(2+4체제)으로 연장 |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19일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그 구체적 학제로 2+4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은 200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약학대학 6년제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교육학·약학·의학·보건행정 등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선 방안 연구」 정책연구진이 건의한 기본모형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배경을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양성 교육체제 구축',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제 수준의 학제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약학대학 학제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의 신규 세부사업은 '최우수 실험실 사업',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지원사업', '산학협력 우수실업고지원 사업', '교육훈련혁신센터사업' 등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는 약사양성교육체제 구축',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제수준의 학제 마련'을 위해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2+4체제)으로 연장

- ① 수업연한 6년의 “2+4” 약학대학 학제 도입
- ② 도입시기 : 2005년 기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 부터 시행
- ③ 지원자격 : 약학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 하고,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성 적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함.
- ④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실시
- ⑤ 학제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 유도

교육인적자원부는 다각적인 행·재정 지원대책을 통해 새로운 학제의 조기 정착 과 약학교육의 질 제고를 추구하기로 하였다.

▣ 직업교육 및 산학협력 동향

| 2005 실업고 및 전문대 주요 현황 |

• 학교수 · 학생수 · 교원수

2004년과 비교하여, 실업계 고교는 학교수, 학생수, 교원 수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전문대학은 학교수, 학생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교원수는 약 200여명이 증가

2005년 실업계 고교 학교수는 713개교로 2004년에 729개교에 비해 16개교가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각각 7만여 명, 1만6천여 명이 증가한 반면, 실업계 고교 학생수는 오히려 514,550명에서 약 11,000여 명이 줄어든 503,104명으로 집계되었고, 교원수도 지난 해 39,906명에서 약 750여 명이 감소한 39,163명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수가 2004년 897,589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무려 4만여 명이 감소한 853,089명으로 집계되었고, 교원수가 11,872명에서 12,027명으로 2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학교수 · 학생수 · 교원수 추이

(단위: 개교, 명)

구분	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학교수	실업고 605	635	587	762	764	759	741	734	729
학교수	전문대 128	120	117	145	158	158	159	158	158	158	
학생수	실업고	764,187	885,962	810,651	911,453	746,986	651,198	575,363	542,077	514,550	503,104
	전문대	165,051	242,117	323,825	569,820	913,273	952,649	963,129	925,963	897,589	853,089
교원수	실업고	10,009	15,340	23,468	29,506	34,609	42,656	40,977	39,810	39,906	39,163
	전문대	1,637	2,748	5,488	6,406	7,382	10,384	11,707	11,897	11,872	12,027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학급당 학생수/교원1인당 학생수

2005년 실업계 고교 학급당 학생수 30.0명으로 지난 198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1980년대의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해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업계 고교 학급당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과 80년대 이후의 '저출산정책'에 따른 것

〈표2〉 실업계 고교 학급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실업계 고교		56.1	57.0	59.6	55.5	51.5	47.9	40.3	36.4	32.2	31.0	30.2	3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실업계 고교가 13.5명, 전문대학이 70.9명으로 나타나 지난 2000년을 전후를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3〉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실업계 고교		27.5	31.0	32.6	30.0	23.4	21.4	18.2	16.4	14.4	13.8	13.4	13.5
전문대학		24.2	27.4	33.8	45.2	52.7	67.6	78.0	80.1	79.2	77.3	75.6	70.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교원 1인당 학생수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

• 진학률/취업률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상황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67.6% 기록, 전년 대비 5.3%p가 상승한 것을 나타냈으며, 지난 1995년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4〉 진학률

년도	구분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고등교육	일반계고 → 고등교육	실업계고 → 고등교육
	1980		95.8	84.5	27.2	39.2
1985		99.2	90.7	36.4	53.8	13.3
1990		99.8	95.7	33.2	47.2	8.3
1995		99.9	98.5	51.4	72.8	19.2
2000		99.9	99.5	68.0	83.9	41.9
2001		99.9	99.5	70.5	85.2	44.9
2002		99.9	99.5	74.2	87.0	49.8
2003		99.9	99.7	79.7	90.1	57.6
2004		99.9	99.7	81.3	89.8	62.3
2005		99.9	99.7	82.1	88.3	67.6

주: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진학률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67.6% 기록 전년 대비 5.3%p가 상승

취업률

실업계 고교의 취업률 감소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고
등교육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

〈표5〉 취업률

년도	구분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대학교
1980		15.7	58.2	50.3	73.0
1985		16.2	60.4	57.2	52.1
1990		18.7	84.0	71.8	55.0
1995		26.4	90.9	74.2	60.9
2000		15.5	88.8	79.4	56.0
2001		18.9	88.2	81.0	56.7
2002		18.1	90.0	80.7	60.7
2003		17.6	90.2	79.7	59.2
2004		14.0	87.6	77.2	56.4
2005		12.1	86.3	83.7	65.0

주: 1)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 (임대자+진학자)} × 100
 2) 전문대학에는 각종학교(전문)과 사내대학, 원격대학(전문)이, 대학교에는 교육대학교, 산업대 학교,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교, 각종학교(대학), 원격대학(대학) 등이 불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실업계 고교의 취업률은 86.3%로 전년 대비 1.3%p가 감소하여 지난 2002년 이후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업계 고교의 취업률 감소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활발 |

• 충남 청양대학-삼성전자,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삼성전자는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청양대학에 지원

충남도립 청양대학은 7월 1일, 최근 삼성전자 등 2개 첨단기업과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학협약에 따라 청양대 디스플레이전자과와 컴퓨터정보과, 시각정보디자인과, 토목환경과 등 첨단학과 학생들은 이들 업체의 도움을 받아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배우게 된다.

• 부산대학교-삼성전자, '삼성전자 정보통신 트랙 운영 협약' 체결

부산대학교는 주문식 교육과정의 개설을, 삼성전자는 과 정개발비 및 실습기자재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

부산대학교와 삼성전자도 7월 22일 부산대 대학본부 동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삼성전자 정보통신 트랙 운영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부산대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공과대학 전자전기정보컴퓨터 공학 부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주문형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정보통신 트랙 운영을 위한 과정개발비 및 실험실습기자재를 지원받는다. 부산대측은 오는 2학기부터 이 과정에 30명의 학부생, 20명의 석사과정 학생, 15명의 박사과정 학생

을 선발하며, 학생들은 삼성전자로부터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짜여진 7개 과정의 주요세부 과목을 이수한 뒤 졸업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취업하게 된다.

• 영진전문대-신세계이마트, '유통대학' 체결

영진전문대와 신세계이마트는 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영진전문대-신세계이마트 유통대학을 2006학년도에 개설하기로 하고 7월 20일 산·학협력 및 주문식 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 유통대학은 산업교육진흥법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조)과 시행령(7조)에 따라 출석 수업과 온라인 수업, 현장실습 등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영진전문대는 신세계이마트 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유통경영과와 사회복지과에 각각 80명과 40명 정원의 신입생을 선발, 2006년 3월에 개강 후 2008년 8월까지 총 5학기 동안 80학점의 전문학사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영진전문대학과 신세계이마트가 운영하는 유통대학의 특징은 교육의 수요자인 신세계이마트 직원들의 근무 특성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맞춤형 주문식 교육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마트와 영진대학은 유통대학 운영을 위해 인적, 물적 지원을 상호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영진전문대-신세계이마트는 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영진전문대-신세계이마트 유통대학을 2006학년도에 개설

• 강원대-(주)메디슨, 계약학과 설립 협약 체결

강원대와 (주)메디슨은 8월 9일 협약식을 갖고 오는 9월부터 강원대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전공 3학년에 (주)메디슨 소속 직원 25명을 편입학 시켜 2년간 교육 후 기술인력으로 다시 투입키로 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기술인력 양성,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수행,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대학에 설치되는 맞춤형 학과이다. 현재 고려대, 금오공대, 영남대, 호서대 등이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대와 (주)메디슨은 이번 계약학과 설치와 연계해 앞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산업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채용하는 방식으로 계약학과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대는 (주)메디슨 소속 직원 25명을 편입학 시켜 2년 교육 후 기술 인력으로 다시 투입하는 계약학과 설립 협약을 체결

• 거창전문대학-경남개발공사, 산학협력 협약 체결

거창전문대학과 경남개발공사는 8월 18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 두 기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식과 기술 등의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협력

거창전문대학은 경남개발공사와 현장실습 기회 제공, 우수 인력의 취업연계 협조, 주문식 교육과정의 개발, 지식과 기술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

관계를 도모해 경쟁력 있는 전문대학과 지방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산학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앞으로 현장실습 기회제공 및 우수인력의 취업연계를 협조하고 전문교재와 교육과정 공동개발, 산학과제 진행 및 학술정보와 간행물 교환 등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비 동향

|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교육비, 전년과 비슷한 수준 |

2005년 2/4분기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199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가 증가하였고, 교육비 지출 역시 3.0% 증가

2005년도 2/4분기 도시근로자 소비지출 총액은 199만3천 원, 가구당 평균교육비는 18만9천 원, 가구당 월평균 총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은 16.7%로 나타났다. 2005년 2/4분기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199만3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가 증가하였고, 교육비 지출 역시 3.0%가 증가하였다.

월평균 교육비는 같은 기간 동안 18만4천 원에서 18만9천 원으로 5천 원이 증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월평균 총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7%로서 전년 동기의 9.5%보다 7.2%p 상승하였다.

〈표6〉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총액 대비 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4	3/4	4/4	1/4	2/4	3/4	4/4	1/4	2/4
소비지출 총액	1,869	1,940	1,932	2,107	1,931	2,040	1,995	2,187	1,993
교육비 지출	184(9.8)	270(13.9)	187(9.7)	303(14.4)	184(9.5)	276(13.5)	180(9.0)	302(13.8)	189(16.7)
증가율	14.0	11.1	20.0	18.3	0.0	2.5	-3.4	-0.1	3.0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 (<http://kosis.nso.go.kr/>).

| 교육비 내역별 지출, 보충교육비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교육비 내역별 지출액은 보충교육비만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교육비(학원·개인교습·인터넷과외 등)는 14만7천 원으로 5.0%가 증가, 전 교육비 지출 내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 지출 내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납입금과 교재비(교과서 및 참고서)는 각각 1.9%, 4.9%씩 감소하였고, 문방구비가 10.5% 감소하여 교육비 지출 내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내역 추이

(단위: 천원, %)

	2003 2/4			2004 2/4			2005 2/4		
	금 액	구성비	증가율	금 액	구성비	증가율	금 액	구성비	증가율
교육비 총액	183.8	100.0	14.0	183.9	100.0	0.0	189.5	100.0	3.0
- 납입금	36.8	20.0	0.9	32.3	17.6	-12.2	31.7	16.7	-1.9
- 교재비	13.7	7.5	-43.7	7.1	3.9	-47.9	6.8	3.6	-4.9
- 보충교육비	129.2	70.3	34.8	140.3	76.2	8.6	147.3	77.7	5.0
- 문방구	4.1	2.2	-12.0	4.2	2.3	1.4	3.7	2.0	-10.5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 (<http://kosis.nso.go.kr/>).

사교육비

보충교육비(학원·개인교습·인터넷과외 등)는 14만7천원으로 5.0%가 증가, 전 교육비 지출 내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 지출 내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직종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근로자외 가구 특히 무직가구의 지출 큰 폭 증가 | 직종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근로자외 가구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8만8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생산직 가구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반면, 사무직 가구는 0.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외 가구는 19만1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가 증가하였으며, 자영자 가구와 무직 가구 모두 각각 6.3%, 12.1%씩 큰 폭으로 증가해 근로자 가구와 대조를 이뤘다.

무직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의 증가율은 2004년 2/4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번 분기에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표8〉 가구당 직종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단위: 천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4	3/4	4/4	1/4	2/4	3/4	4/4	1/4	2/4	증가율
전가구 평균	183.8	269.6	186.7	302.6	183.9	276.4	180.3	302.3	189.5	3.0
근로자 가구	184.9	256.6	183.8	296.7	186.2	268.9	180.5	312.4	188.0	1.0
사무직	248.9	323.7	253.5	378.2	258.6	340.5	257.3	394.1	258.4	-0.1
생산직	133.2	202.8	128.5	232.0	128.8	212.0	120.6	246.9	132.6	3.0
근로자외 가구	182.3	287.6	190.9	310.5	180.6	286.8	180.0	288.8	191.6	6.1
자영자	217.3	335.3	225.8	355.2	219.5	338.8	216.8	38.3	233.4	6.3
무직	101.6	177.1	105.6	205.9	85.0	166.0	91.7	178.9	95.3	12.1

근로자외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19만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가 증가하였으며, 자영자 가구와 무직 가구 모두 큰 폭으로 증가

주: 1) "전가구평균≠근로자 가구+근로자외 가구, 근로자가구≠사무직+생산직, 근로자외≠자영자+무직"인 이유는 각 직종별 가구에 대한 가구수, 지역 등의 중합가중치 적용에서 기인하는 것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국내통계 DB 가계조사(<http://kosis.nso.go.kr/>).